

2025년 12월 3일 광주전남 2025 - 71호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25년 12월 4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배포시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최근 광주·전남지역 고용 현황 및 시사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허수정, 조사역 정윤재  
Tel : (062) 601-1073, 1112 Fax: (062) 601-1132 E-mail : gwangju@bok.or.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gwangju>)에도 수록되어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붙임)

# 최근 광주·전남지역 고용 현황 및 시사점

2025. 12.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작성자〉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허수정 과장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정윤재 조사역

〈조언자〉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이준범 팀장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례

## <요약>

### I 검토 배경

### II 광주·전남지역 고용 여건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업종별 노동수요 차별화 ..... 2
2. 인구구조 변화 속에 진행되는 고용환경 변화 ..... 5

### III 광주·전남지역 고용 현황

1. 광주지역 고용 현황 ..... 7
  - (1) 취업자수는 증가 전환하였으나 구직난은 심화 ..... 7
  - (2) 청년층 및 핵심연령층 취업자 비중 축소 ..... 8
  - (3) 도소매·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고용 악화 ..... 8
  - (4) 2024년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 급격히 감소 ..... 9
  - (5) 낮은 청년고용률 ..... 10
2. 전남지역 고용 현황 ..... 11
  - (1) 취업자수 감소세 지속 ..... 11
  - (2) 핵심연령층 취업자의 감소 전환 ..... 11
  - (3) 농림어업 및 건설업 비중이 높은 취업 구조 ..... 12
  - (4) 자영업자·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아 고용 불안에 노출 ..... 12
  - (5) 고령층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 13

### IV 광주·전남지역 고용부진의 원인

1. 주력산업 경기 악화에 따른 고용 불안 ..... 14
2. 소비패턴 변화와 자동화·무인화에 따른 자영업 고용 여건 악화 ..... 17
3. 광주지역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층 인구 유출 ..... 19
4. 전남지역 농림어업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기반 악화 ..... 22

### V 종합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종합평가 ..... 24
2. 정책적 시사점 ..... 25

<참고> 고용 관련 용어 정의 ..... 1

< 표 차례 >

<표 3-1> 전남지역 주요 고용지표 ..... 13  
<표 4-1> 광주지역 산업단지 고용 현황 ..... 16  
<표 4-2> 전남지역 산업단지 고용 현황 ..... 16  
<표 4-3>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 소득 변화 ..... 17  
<표 4-4> 외식업체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 ..... 18  
<표 4-5> 광주 청년층의 지역별 순이동 ..... 21

< 그림 차례 >

<그림 2-1> 광역시·도별 GRDP 규모 ..... 2  
<그림 2-2> 업종별 GRDP 구성 비중 ..... 3  
<그림 2-3> 업종별 GRDP 구성 비중 변화(2020년 vs 2024년) ..... 3  
<그림 2-4> 광주지역 주력산업 성장률 ..... 4  
<그림 2-5> 전남지역 주력산업 성장률 ..... 4  
<그림 2-6> 광주전남지역 경제성장률 ..... 4  
<그림 2-7> 광주지역 인구수 추이 ..... 5  
<그림 2-8> 광역시별 인구수 ..... 5  
<그림 2-9> 광주지역 연령별 인구 증가율 ..... 5  
<그림 2-10> 전남지역 인구수 추이 ..... 6  
<그림 2-11> 전남지역 연령별 인구 증가율 ..... 6  
<그림 3-1> 광역시별 취업자수 ..... 7  
<그림 3-2> 광주지역 취업자수 증감 ..... 7  
<그림 3-3> 광주지역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 8  
<그림 3-4> 광주지역 연령별 취업자수 비중 변화 ..... 8  
<그림 3-5> 광주지역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 ..... 9  
<그림 3-6> 광주지역 업종별 취업자수 비중 변화 ..... 9  
<그림 3-7> 광주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 10  
<그림 3-8> 광주지역 자영업자 비중 추이 ..... 10  
<그림 3-9> 광주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 10  
<그림 3-10> 광주지역 고용률, 청년고용률, 실업률 ..... 10  
<그림 3-11> 광역시별 경제활동인구 및 청년고용률 ..... 10  
<그림 3-12> 전남지역 취업자수 증감 ..... 11  
<그림 3-13> 전남지역 취업자수 증가율 추이 ..... 11  
<그림 3-14> 전남지역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 11  
<그림 3-15> 전남지역 연령별 취업자수 비중 변화 ..... 11

<그림 3-16> 전남지역 업종별 취업자수 비중 .....	12
<그림 3-17> 전남지역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 .....	12
<그림 3-18> 업종별 취업자수 비중 변화 .....	12
<그림 3-19> 전남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	13
<그림 3-20> 전남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비중 .....	13
<그림 3-21> 전남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비중 변화 .....	13
<그림 3-22> 전남지역 고용률 추이 .....	13
<그림 4-1> 제조업 생산지수 .....	14
<그림 4-2> 광주지역 산업단지 생산액 .....	14
<그림 4-3> 전남지역 산업단지 생산액 .....	14
<그림 4-4> 광주지역 업종별 생산지수 .....	14
<그림 4-5> 광주지역 품목별 수출액 .....	14
<그림 4-6> 전남지역 업종별 생산지수 .....	15
<그림 4-7> 전남지역 품목별 수출액 .....	15
<그림 4-8> 광주지역 건축허가·착공면적 .....	16
<그림 4-9> 전남지역 건축허가·착공면적 .....	16
<그림 4-10> 광주·전남지역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	16
<그림 4-11> 광주·전남지역 전자상거래 결제 추이 .....	17
<그림 4-12> 광주·전남지역 일반사업자 폐업 추이 .....	17
<그림 4-13> 광주·전남지역 일반사업자 폐업 업종별 구성비 .....	17
<그림 4-14> 광주·전남지역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 .....	18
<그림 4-15> 청년층 선호 일자리(직장) 기준 .....	19
<그림 4-16> 지역별 월평균 임금 현황 .....	19
<그림 4-17> 지역별 취업자 직업별 분포 .....	20
<그림 4-18> 광주지역 직업구조 변화 .....	20
<그림 4-19> 지역별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비중 .....	20
<그림 4-20> 광주지역 기업규모별 취업자 추이 .....	20
<그림 4-21> 광주지역 청년층 취업자수 및 청년층 순유출인구 .....	21
<그림 4-22> 광주지역 거주자의 수도권으로의 전출사유 .....	21
<그림 4-23> 전남지역 업종별 GRDP 비중 및 취업자 비중 .....	22
<그림 4-24> 전남지역 시군별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 .....	23
<그림 4-25> 전남지역 시군별 업종별 취업자수 비중 .....	23
<그림 4-26> 광역도의 농림어업 고령층 비중(2020년 vs 2024년) .....	23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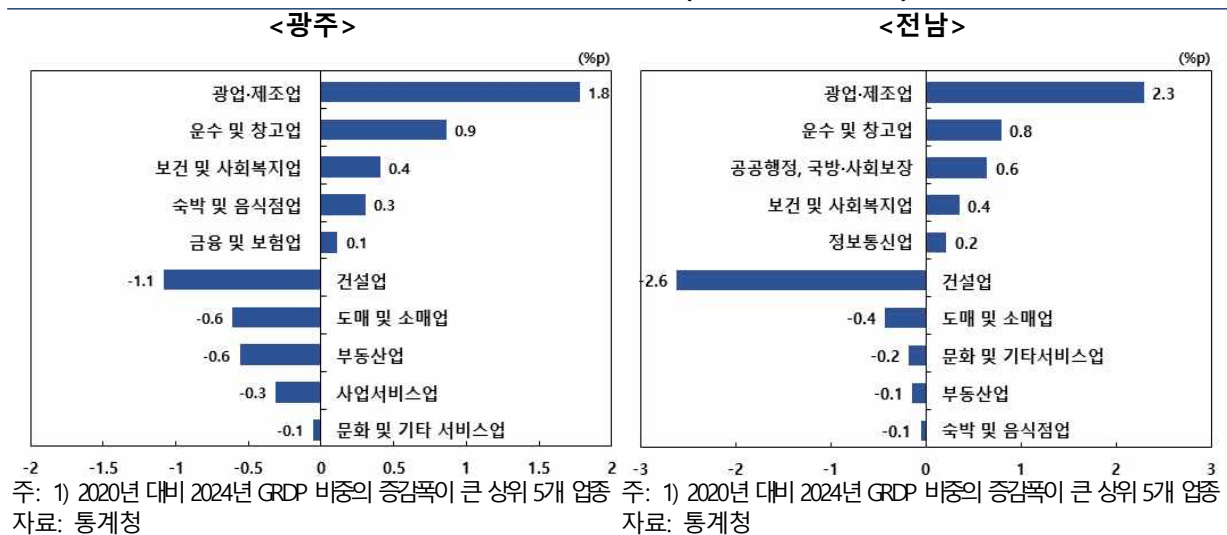
### I. 검토 배경

- 최근 광주·전남 지역경제는 미 관세정책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증대,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 또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광주·전남지역 고용상황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산업·인구구조 측면에서 고용 여건을 점검한 다음 고용 실태 및 고용구조 변화, 고용 부진 원인 등을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광주·전남지역 고용 여건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업종별 노동수요 차별화)** 광주와 전남지역의 상대적으로 작은 GRDP 규모는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업·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동 산업부문의 고용인력 유인 등 고용정책을 새롭게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업종별 GRDP 구성 비중 변화<sup>1)</sup>(2020년 vs 2024년)>



- **(인구구조 변화 속에 진행되는 고용환경 변화)** 광주·전남지역 인구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고령층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과 핵심 연령층은 감소하여 고용인력 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광주지역 연령별<sup>1)</sup> 인구 증가율<sup>2)</sup>>



주: 1) 청년층 15~29세, 핵심연령층 30~64세, 고령층 65세 이상  
 2) 2020년 대비 2024년 증가율  
 자료: 통계청

<전남지역 연령별 인구 증가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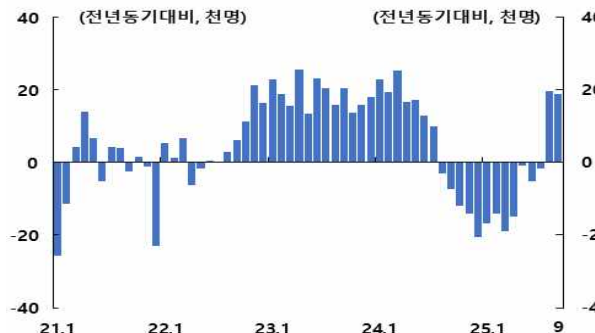


주: 1) 2020년 대비 2024년 증가율  
 자료: 통계청

### Ⅲ. 광주·전남지역 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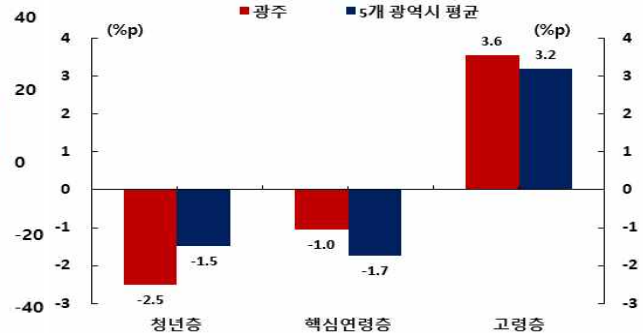
- (광주지역) 최근 광주지역 취업자수는 과거 1년 동안의 감소세에서 증가 전환하였으나 구직난은 심화되는 모습이다. 연령별 취업구조는 타 광역시 평균에 비해 취업자의 청년층 비중은 더 크게 축소된 반면, 고령층 비중은 더 크게 확대되었다.

<광주지역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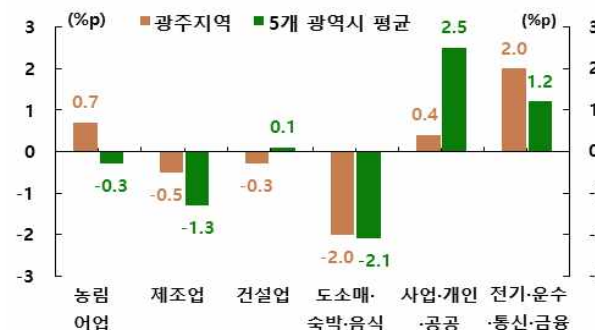
<광주지역 연령별 취업자수 비중 변화<sup>1)</sup>>



주: 1) 2020년 대비 2024년 연령별 취업자수 비중 증감  
 자료: 통계청

- 업종별로는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되어 취업자 비중도 축소되었다. 또한 자영업자는 2024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업종별 취업자수 비중 변화<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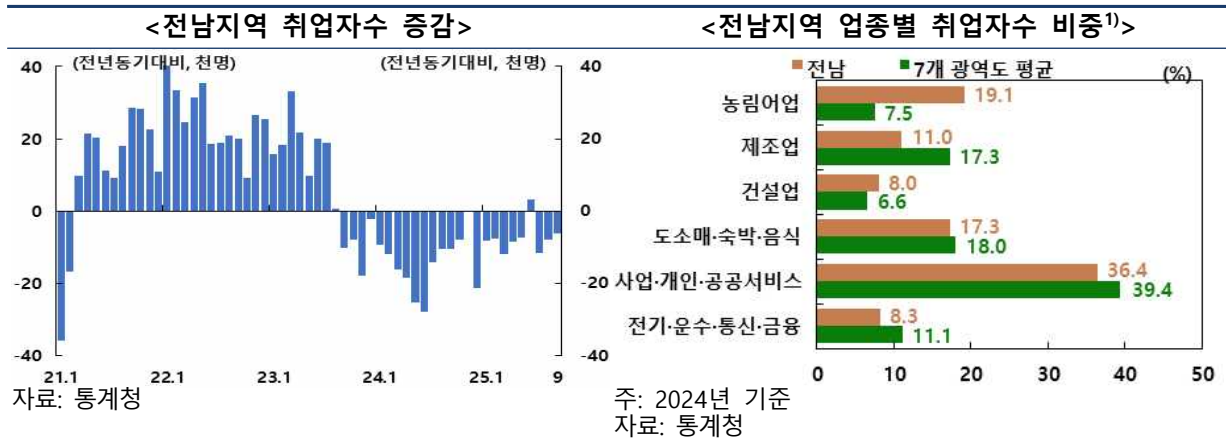
주: 1) 2020년 대비 2024년 업종별 취업자수 비중 증감  
 자료: 통계청

<광주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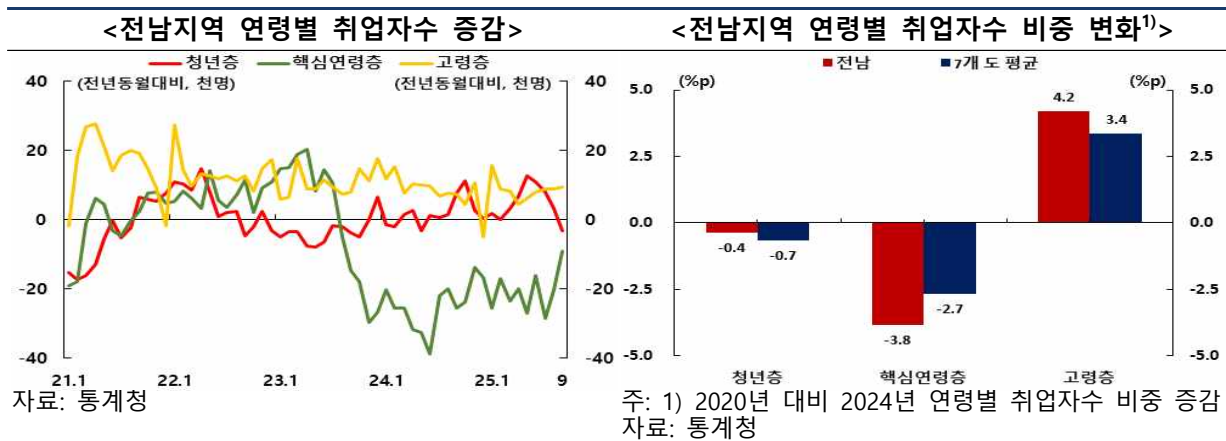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전남지역)** 전남지역의 취업자수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과 건설업 비중이 타 광역도 평균 대비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취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고용안정 측면에서 일자리 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및 청년층 역외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경기 악화시 고용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 연령별 취업자수는 2021년 이후 고령층이 꾸준히 늘어나며 전체 취업자수 확대를 이끌어 왔으나, 2023년 하반기 이후 핵심연령층이 줄어들면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IV. 광주·전남지역 고용부진의 원인

- (주력산업 경기 악화에 따른 고용 불안)** 광주에서는 2023년 중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생산 부진이 두드러졌으며, 전남에서는 2022~23년 동안 석유화학·석유정제·철강 산업의 부진이 지속되었다. 건설업 또한 장기간 업황 부진이 지속되었다.

<광주지역 업종별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전남지역 업종별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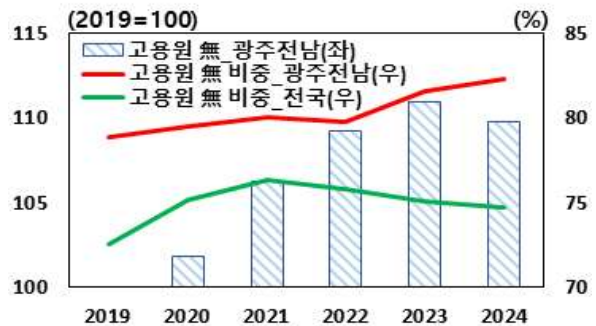
- (소비패턴 변화와 자동화·무인화에 따른 자영업 고용 여건 악화) 온라인 구매 확대와 소비행태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자영업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키오스크 등 무인화 확산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가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sup>1)</sup> 전자상거래 결제 추이>



주: 1) 신용카드 고객의 결제대금 청구지 기준  
자료: 신용카드 3社(하나, 신한, 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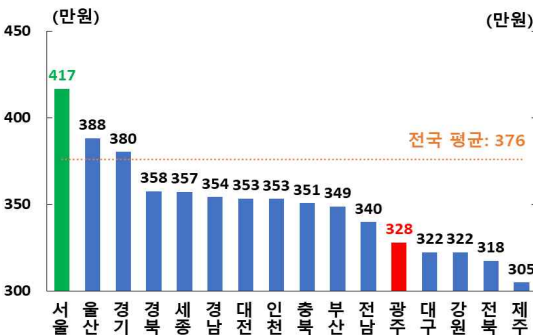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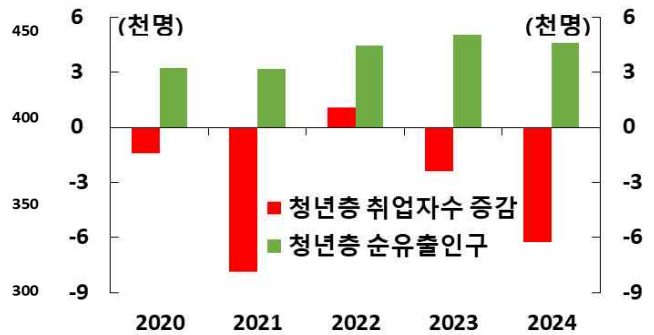
- (광주지역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층 인구 유출) 광주지역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소득·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낮아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 월평균 임금<sup>1)</sup> 현황<sup>2)</sup>>



주: 1) 상용월급액  
2) 2024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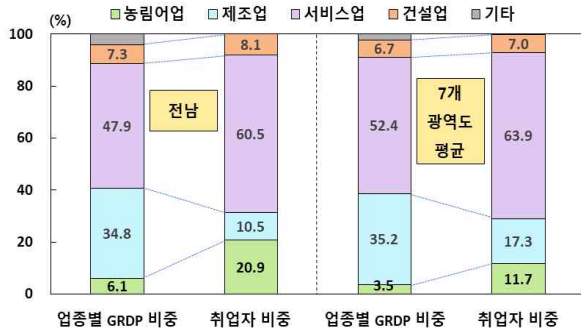
<광주지역 청년층 취업자수 및 순유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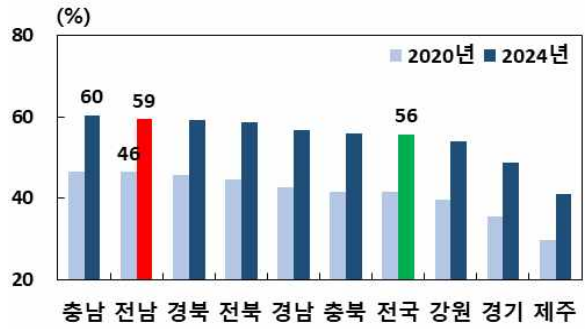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전남지역 농림어업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기반 약화) 전남지역은 농림어업 분야의 생산 비중에 비해 고용 비중이 높은 구조인데, 최근 5년간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농림어업 인구의 고령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지역 업종별 GRDP 비중 및 취업자 비중<sup>1)</sup>>      <광역도의 농림어업 고령층 비중(2020년 vs 2024년)>



주: 1) GRDP는 2023년, 취업자는 2024년 기준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V. 종합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광주·전남지역의 주력산업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업 구조에 맞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석유화학·정유·철강 등 중화학 기반 산업 비중이 높아 탄소저감형 친환경 제품 및 첨단산업용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태양광·풍력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의 약화된 고용 기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소비채널 전환과 소비행태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인 만큼, 지역 자영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내 대규모 물류시설을 유치한다면, 물류·유통 분야 고용을 확대해 지역 고용 구조의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광주지역의 청년층 유인을 위해서는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여 고속련·전문직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고령화에 따른 전남지역 농림어업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스마트농업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데이터·ICT 기반의 스마트양식 및 스마트팜 운영 등 고속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농업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화 기반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창업·창직 기회를 넓히고, 농촌 내 돌봄·복지·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함께 육성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고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 1. 검토 배경

1. 최근 광주·전남 지역경제는 미 관세정책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증대,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 또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하였으며, 수출도 2024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023년 -6.3% → 2024년 -3.2% → 2025.1~9월 -7.0%).
2. 전국적으로는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제조업과 장기간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2025년 10월 기준으로 각각 25개월, 17개월 연속 종사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sup>1)</sup>. 또한 2017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장기적인 고용구조 변화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3.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광주·전남지역 고용상황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산업·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라 고용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4. 이하 본고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산업·인구구조 측면에서 고용 여건을 점검한 다음 고용 실태 및 고용구조 변화, 고용 부진 원인 등을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 >

## 고용 관련 용어 정리

구 분	주 요 내 용
15세 이상 인구 (노동가능인구)	- 군인과 재소자 등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라 함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를 모두 갖추고 실제로 일했거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이 없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예: 학생, 전업주부, 고령자, 구직단념자 등)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 일시적 휴직자(질병, 휴가, 파업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자로 분류됨
실업자	- 취업을 하지 못하였으나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이 주어졌을 경우 즉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구비된 사람
경제활동 참가율	-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경기 개선 시 구직활동자가 늘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할 수 있으나, 동시에 실업률도 높아질 수 있음
고용률	- 15세 이상 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경제활동인구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음 - 단시간 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 체감 고용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구직포기자(숨은 실업자)가 포함되지 않아 체감 실업률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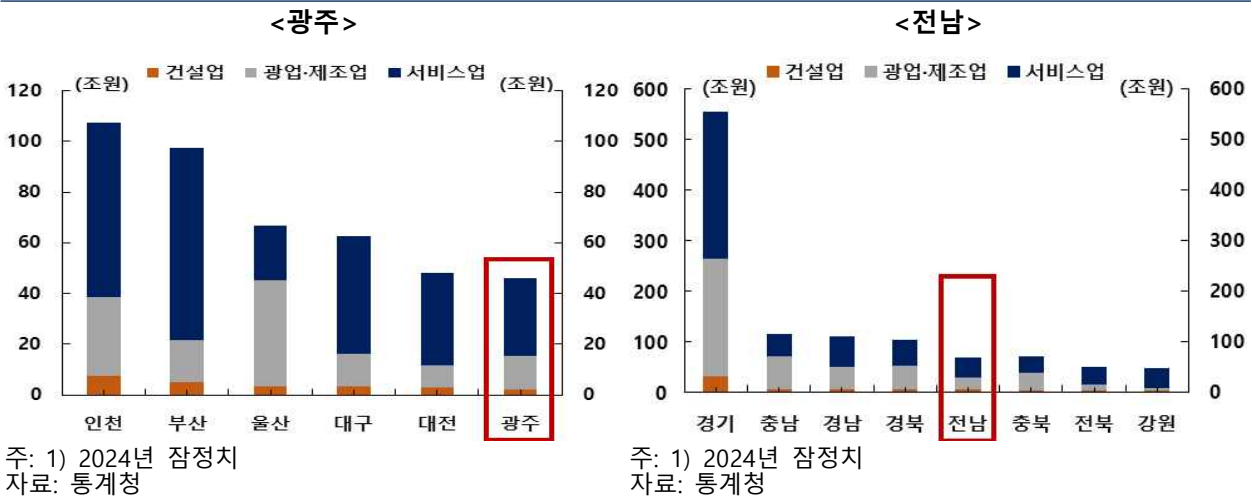
1) 고용노동부,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보도자료(2025.11.27일)

## II. 광주·전남지역 고용 여건

###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업종별 노동수요 차별화

5. 광주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2024년 기준)은 6개 광역시 중 가장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49.6조원으로 전국(2,289조원)의 약 2.2%를 차지하고, 6개 광역시 중 가장 작은 규모에 속한다. 업종별로는 광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다른 5개 광역시<sup>2)</sup> 평균(이하 "타 광역시 평균")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전남지역의 GRDP(2024년 기준)는 8개 광역도 중 5위 규모로 다른 7개 광역도<sup>3)</sup> 평균(이하 "타 광역도 평균")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87.9조원으로 전국의 약 3.8%를 차지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타 광역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2-1. 광역시·도별 GRDP 규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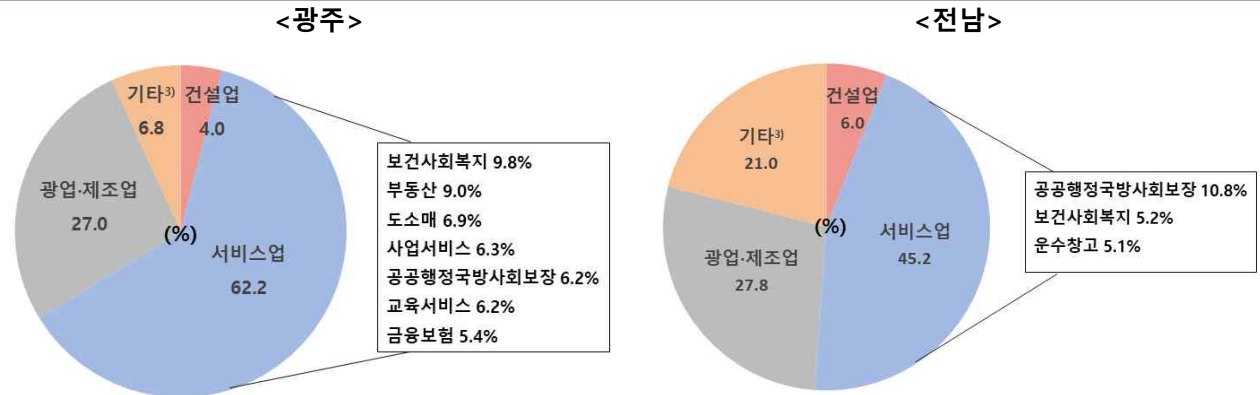
7. 광주지역 GRDP의 업종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서비스업(62.2%), 광업·제조업(27.0%), 건설업(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2020년 대비 2024년<sup>4)</sup> GRDP 업종별 비중은 광업·제조업(+1.8%p), 운수 및 창고업(+0.9%p), 보건 및 사회복지업(+0.4%p) 등이 증가한 반면, 건설업(-1.1%p), 도소매업(-0.6%p), 부동산업(-0.6%p) 등은 감소하였다. 전국은 광업·제조업(+1.0%p), 운수 및 창고업(+1.2%p), 보건 및 사회복지업(+0.5%p) 등이 증가한 반면, 건설업(-0.6%p), 도소매업(-0.7%p), 부동산업(-0.6%p) 등은 감소하였다. 광주지역은 전국에 비해 광업·제조업 비중의 증가폭이 더 큰 반면 건설업 비중의 감소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2)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3)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4) 본고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고용상황의 구조적 변화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20년 및 2024년 중 고용여건 및 고용상황 데이터를 비교·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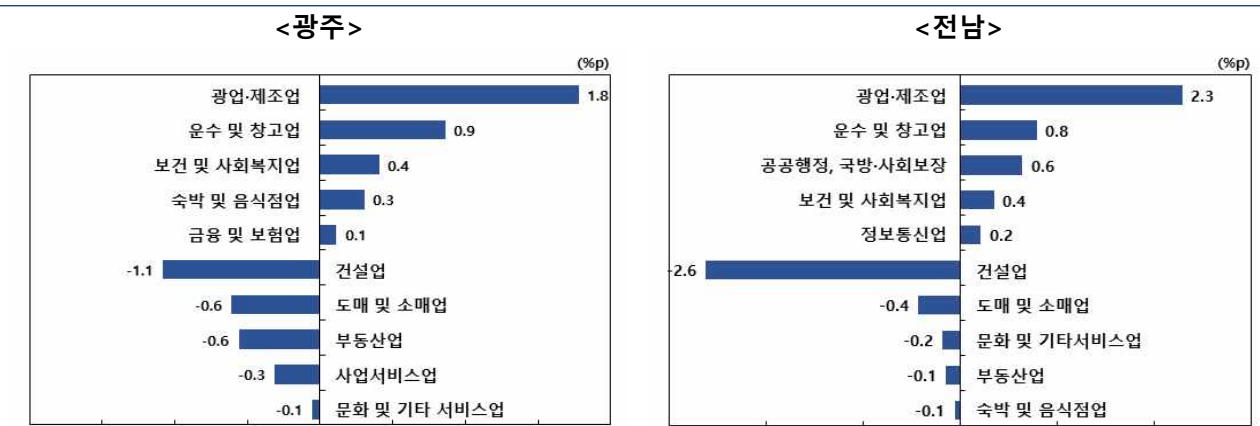
그림 2-2. 업종별 GRDP 구성 비중<sup>1)2)</sup>



주: 1) 2024년 잠정치 기준  
 2) 서비스업 세부업종은 2024년 GRDP 비중이 5% 이상인 업종  
 3) 기타산업 및 순생산물세  
 자료: 통계청

8. 전남지역 GRDP의 업종별 구성 비중은 2024년 기준 서비스업(45.2%), 광업·제조업(27.8%), 건설업(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2020년 대비 2024년 GRDP 업종별 비중은 광업·제조업(+2.3%p), 운수 및 창고업(+0.8%p),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0.6%p), 보건 및 사회복지업(+0.4%p), 정보통신업(+0.2%p) 등은 증가하였으나 건설업(-2.6%p), 도소매업(-0.4%p) 등은 감소하였다. 전국에 비해 광업·제조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비중의 증가폭이 더 큰 반면 건설업 비중의 감소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업종별 GRDP 구성 비중 변화<sup>1)</sup>(2020년 vs 2024년)



주: 1) 2020년 대비 2024년 GRDP 비중의 증감폭이 큰 상위 5개 업종  
 자료: 통계청

9. 한편, 광주·전남지역은 주력 제조업의 성장 둔화와 함께 지역경제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자동차·반도체·가전 산업이 1990년대에는

20% 이상 고성장이기도 했으나,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2000년대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한 자릿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남지역 역시 철강·조선·석유화학·석유정제 등의 부문에서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1990년대와 달리, 2000년대에는 조선업을 제외한 산업의 성장률이 10%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20년대에는 5% 미만의 성장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2-4. 광주지역 주력산업 성장률<sup>1)</sup> 그림 2-5. 전남지역 주력산업 성장률<sup>1)</sup> 그림 2-6. 광주전남지역 경제성장률



주 : 1) 업종별 생산의 5년 이동평균 성장률 주 : 1) 업종별 생산의 5년 이동평균 성장률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10. 종합적으로 광주와 전남지역의 상대적으로 작은 GRDP 규모는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건설업과 도소매업이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광업·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동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인력·고용정책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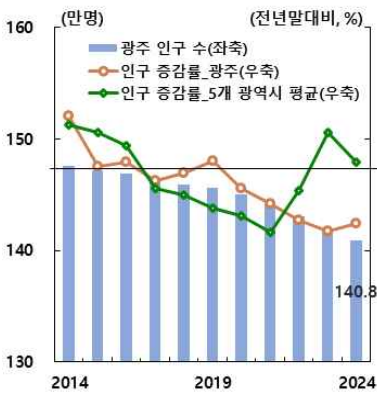
11. 또한 지역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은 노동수요를 제약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

인구구조 변화 속에 진행되는 고용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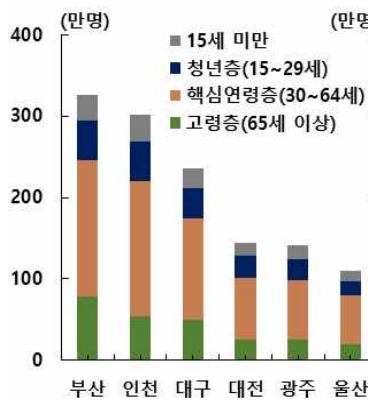
12. 광주지역의 인구수는 6개 광역시 중 5위를 점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율은 타 광역시 평균보다 높다. 연령별 인구수<sup>5)</sup>는 청년층, 핵심연령층, 고령층 모두 5개 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의 인구는 2024년말 기준 140.8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2.7%를 차지하며 6개 광역시 가운데 울산 다음으로 적다. 인구 추이를 보면 2020년 대비 2024년 광주지역 인구는 2.9% 줄어들었는데, 같은 기간 5개 광역시 평균 감소율인 1.4%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고령층의 비중은 늘고 청년층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림 2-7. 광주지역 인구수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8. 광역시별 인구수<sup>1)</sup>



주: 1) 2024년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시산

그림 2-9. 광주지역 연령별<sup>1)</sup> 인구 증가율<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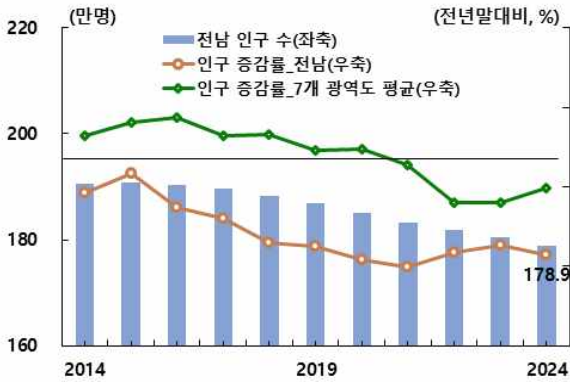
주: 1) 청년층 15~29세, 핵심연령층 30~64세, 고령층 65세 이상  
2) 2020년 대비 2024년 증가율  
자료: 통계청

13. 전남지역의 인구수는 8개 광역도 가운데 5위를 점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율이 타 광역도 평균 대비 매우 높다. 전남지역의 인구는 2024년 기준 178.9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3.5%를 차지한다. 연령별 인구비중은 15세 미만 10.1%, 청년층 13.8%, 핵심연령층 48.9%, 고령층 27.2%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층 비중은 8개 광역도 중 경북(13.6%)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sup>6)</sup>.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고령층의 비중은 늘고 청년층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2024년 전남지역 인구는 2020년 대비 3.4% 줄어들었는데, 동 기간 7개 광역도 평균(-0.1%)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5) 본고에서는 연령별 인구수를 청년층 15~29세, 핵심연령층 30~64세, 고령층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6) 8개 광역도의 2024년 청년층 비중은 경기(16.6%), 충북(15.4%), 전북(15.1%), 충남(15.0%), 강원(14.5%), 경남(14.2%), 전남(13.8%), 경북(13.6%) 순이다.

그림 2-10. 전남지역 인구수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11. 전남지역 연령별 인구 증가율<sup>1)</sup>



주: 1) 2020년 대비 2024년 증가율  
자료: 통계청

14. 종합적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인구수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고령층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청년층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일정 부분 연령별 취업자수나 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일자리 창출, 취업·전직훈련 등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III. 광주·전남지역 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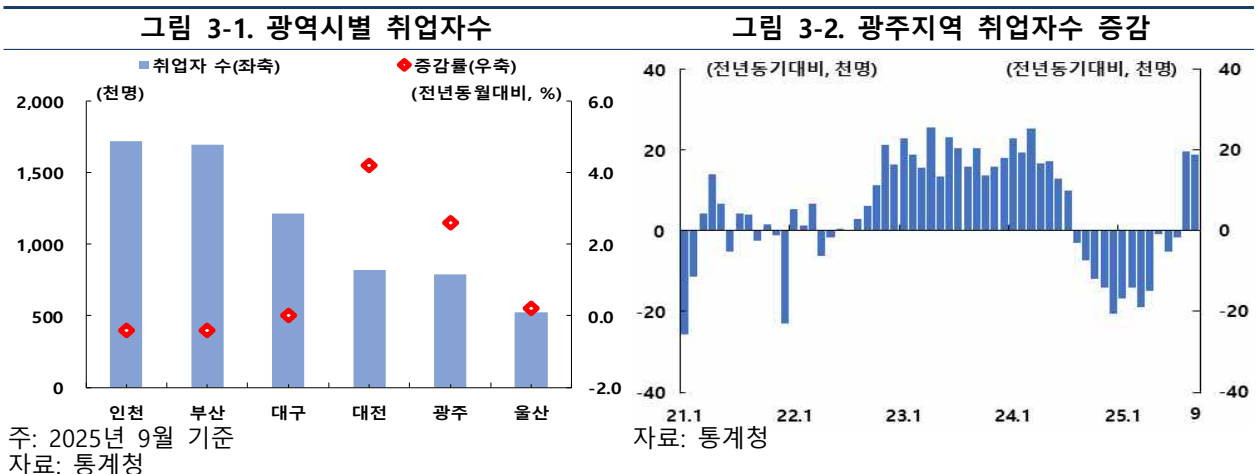
최근 광주지역 취업자수는 과거 1년 동안의 감소세에서 증가 전환하였으나 구직난은 심화되는 모습이다. 연령별 취업구조는 타 광역시 평균에 비해 취업자의 청년층 비중은 더 크게 축소된 반면, 고령층 비중은 더 크게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되어 취업자 비중도 축소되었다. 또한 자영업자는 2024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의 취업자수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과 건설업 비중이 타 광역도 평균 대비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취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고용안정 측면에서 일자리 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및 청년층 역외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경기 악화시 고용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증가세를 보이던 핵심연령층이 감소로 전환되어 향후 고용시장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 1 광주지역 고용 현황

##### (1) 취업자수는 증가 전환하였으나 구직난은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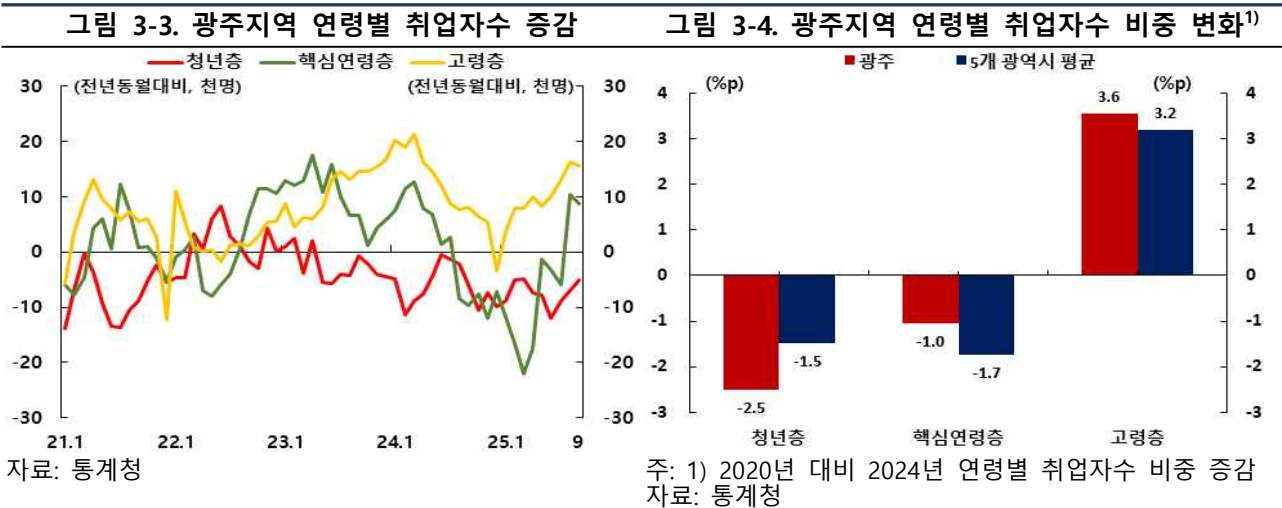
15. 광주지역의 전체 취업자수는 78.7만명(2025년 9월 기준)으로, 6개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적다. 취업자수 증감 추이를 보면, 취업자수는 2024년 하반기 이후 감소하였으며 금년 8월 들어 증가로 전환되었다. 한편, 광주지역의 구인배율(신규구인/신규구직)은 0.24(2025년 9월 기준)를 기록하여 전국(0.44)보다 낮으며,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0.23)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 내 구직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sup>7)</sup>.



7) 2025년 9월 기준 광역시별 구인배율(신규구인/신규구직)은 전국 0.44, 인천 0.38, 울산 0.37, 부산 0.35, 대구 0.32, 광주 0.24, 대전 0.23을 기록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2025.9」 참조).

## (2) 청년층 및 핵심연령층 취업자 비중 축소

16. 광주지역은 2021년 이후 고령층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수 증가세를 주도해 왔으나 2023년 이후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4년 하반기에는 핵심연령층까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체 취업자수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광주지역의 청년층 비중은 2020년 대비 2024년 중 여타 광역시 평균보다 크게 축소된 반면, 고령층 비중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3)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고용 악화

17. 광주지역의 업종별 취업자수<sup>8)</sup>를 살펴보면, 도소매·숙박·음식업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전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8. 2020~24년 중 광주지역의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수는 1.0만명(-6.2%)이 감소하고 업종별 비중은 2.0%p 하락하였다<sup>9)</sup>. 한편 동 기간 중 광주지역에서 취업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부문으로 1.8만명(+24.7%)이 늘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p가 높아졌다<sup>10)</sup>.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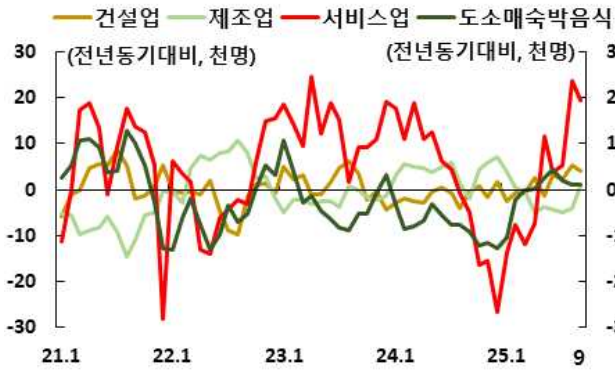
8) 2025년 9월 기준 광주지역의 취업자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총 78.7만명 중에서 서비스업 59.2만명, 제조업 10.3만명, 건설업 7.4만명, 농림어업 취업자가 1.8만명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가 35.1만명, 도소매·숙박·음식업 15.0만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9.2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취업자수의 업종별 비중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44.5%), 도소매·숙박·음식업(19.0%), 건설업(9.4%), 농림어업(2.2%) 등에서 광주지역이 5대 광역시 평균(각각 42.6%, 18.6%, 7.1%, 0.9%)에 비해 높은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11.7%), 제조업(13.1%) 등은 타 광역시 평균(각각 13.4%, 17.4%)보다 낮게 나타났다.

9) 동 기간 중 타 광역시 평균으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4만명(-5.6%) 감소하였고 업종별 비중은 2.1%p 하락하며, 광주지역과 유사한 변동수준을 보였다.

10) 동 기간 중 타 광역시 평균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4.8만명(+10.8%)이 증가하여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도 2.5%p가 더 높아졌으나 광주지역은 1.4만명(+4.3%)이 늘어 업종별 비중은 0.4%p 증가한 데 그쳤다. 그 밖에 동 기간 중 광주지역에서는 농림어업(+0.7%p)의 업종별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타 광역시 평균은 0.3%p 하락하였고, 제조업 비중은 광주지역이 0.5%p 하락하였으나 타 광역시 평균은 1.3%p 하락하여 더 큰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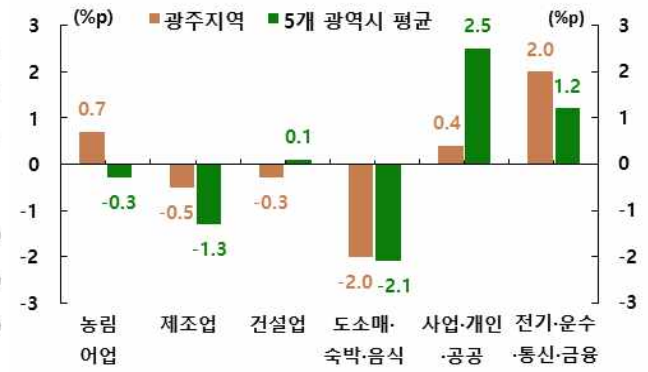
2023년까지는 상승세를 견인했으나, 2024년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광주지역 고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림 3-5. 광주지역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그림 3-6. 광주지역 업종별 취업자수 비중 변화<sup>1)</sup>



주: 1) 2020년 대비 2024년 업종별 취업자수 비중 증감  
자료: 통계청

#### (4) 2024년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 급격히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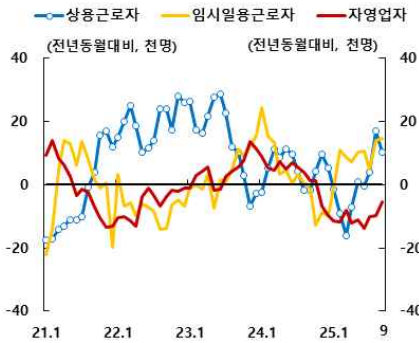
19. 광주지역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sup>11)</sup>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2024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임금근로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는 증가분이 상용근로자가 아닌 임시·일용근로자 중심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가 취업자수 증감의 대부분을 주도해 왔으며, 2024년 하반기 들어 자영업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광주지역 전체 고용 여건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20. 2020~24년 중 광주지역의 자영업자 취업자수 비중은 0.6%p 하락하였다. 한편 전체 취업자수는 총 2.7만명(+3.6%) 증가한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3.5만명(+8.6%)이 늘어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p가 상승하였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등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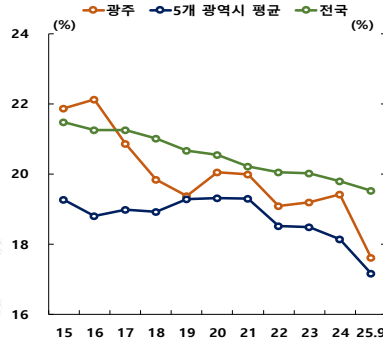
11) 2025년 9월 기준 광주지역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총 78.7만명)는 상용근로자 44.9만명(57.0%), 임시·일용근로자 18.0만명(22.8%), 자영업자 14.3만명(18.1%), 무급가족종사자 1.6만명(2.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광주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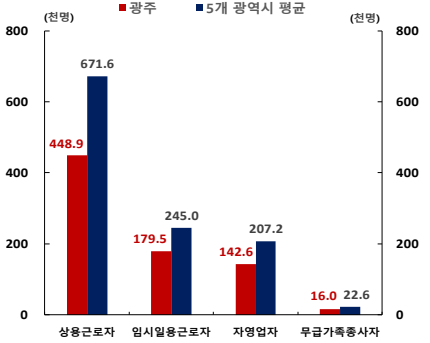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3-8. 광주지역 자영업자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3-9. 광주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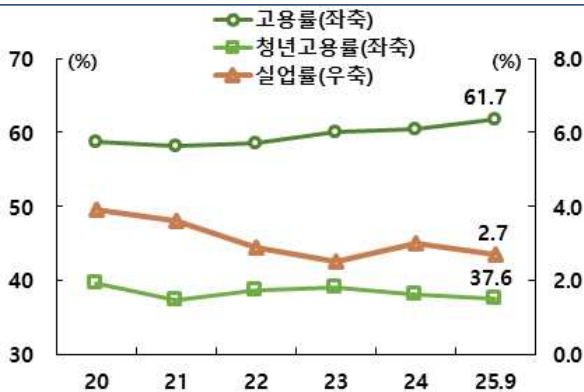


주: 2025년 9월 기준  
자료: 통계청

### (5) 낮은 청년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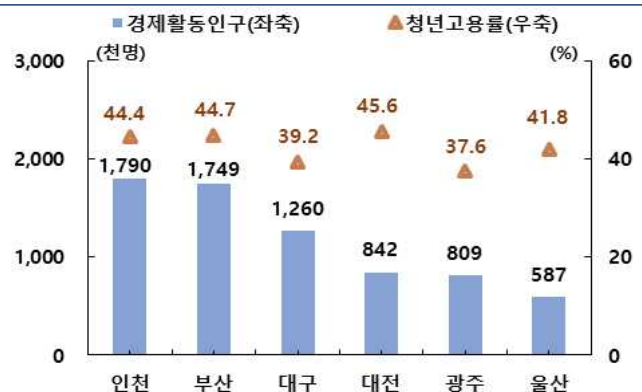
21. 광주지역의 청년고용률은 37.6%(2025년 9월 기준, 이하 동일)로, 타 광역시 평균(4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광주지역 전 연령층 고용률(61.7%)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 한편 광주지역의 실업률은 2.7%, 경제활동참가율은 63.5%, 경제활동인구는 80.9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3-10. 광주지역 고용률, 청년고용률, 실업률



자료: 통계청

그림 3-11. 광역시별 경제활동인구 및 청년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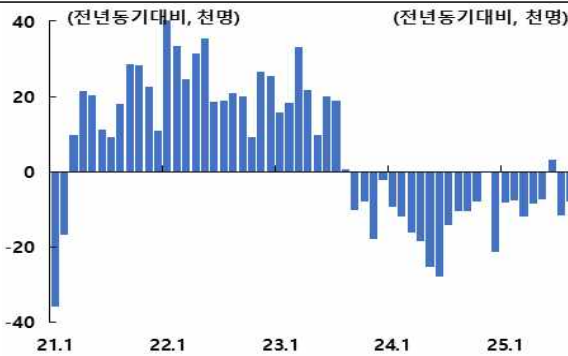
주: 2025년 9월 기준  
자료: 통계청

## 2 전남지역 고용 현황

### (1) 취업자수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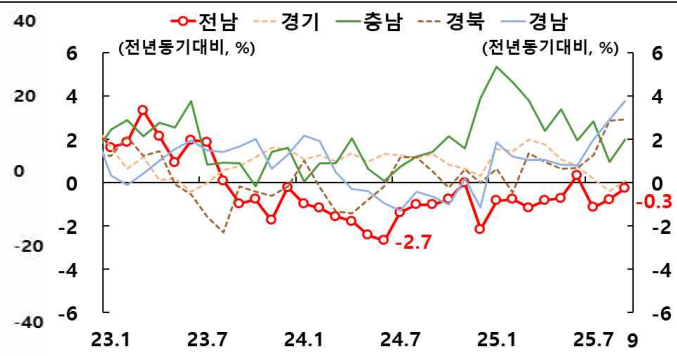
22. 전남지역의 취업자수는 2023년 하반기부터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7월 이후 줄곧 감소 흐름이 이어졌으며, 특히 2024년 6월과 1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7%와 -2.1%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부진을 보였다. 취업자수 증가율은 2023년 하반기 이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취업자수는 상위 5개 광역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sup>12)</sup>.

그림 3-12. 전남지역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그림 3-13. 전남지역 취업자수 증가율 추이<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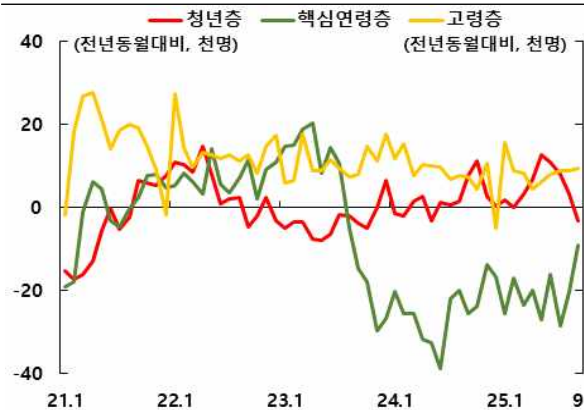


주: 1) 취업자수 상위 5개 광역도  
자료: 통계청

### (2) 핵심연령층 취업자의 감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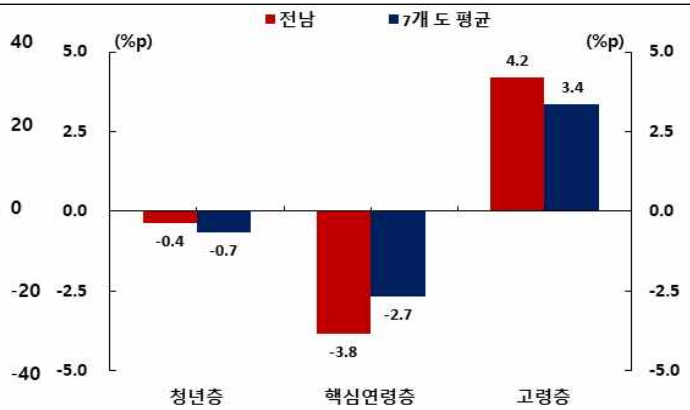
23. 전남지역은 2021년 이후 고령층이 꾸준히 늘어나며 전체 취업자수 확대를 이끌어 왔으나, 2023년 하반기 이후 핵심연령층이 줄어들면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20년부터 2024년 중 전남지역의 핵심연령층 비중은 7개 광역도 평균보다 크게 축소된 반면, 고령층 비중은 7개 광역도 평균보다 더 확대되었다.

그림 3-14. 전남지역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그림 3-15. 전남지역 연령별 취업자수 비중 변화<sup>1)</sup>



주: 1) 2020년 대비 2024년 연령별 취업자수 비중 증감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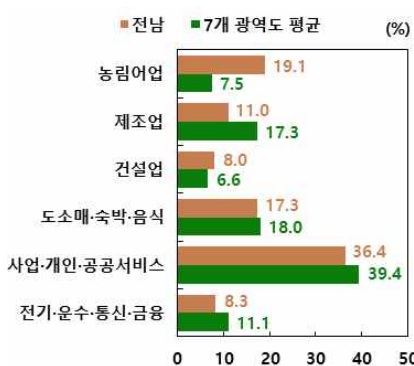
12) 2025년 9월 기준 전남지역의 총 취업자수는 100.7만명으로 타 광역도 평균(218.3만명)의 절반 수준이며 광역도 중 경기(778.9만명), 경남(183.7만명), 경북(151.9만명), 충남(131.8만명)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 (3) 농림어업 및 건설업 비중이 높은 취업 구조

24. 전남지역의 업종별 취업자수<sup>13)</sup>를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건설업 비중이 타 광역도 평균 대비 높고 제조업 비중이 낮은 취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농림어업은 2023년 상반기부터 고용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취업구조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내포하며, 경기 변동 시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청년층 유출을 가속화하고,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고용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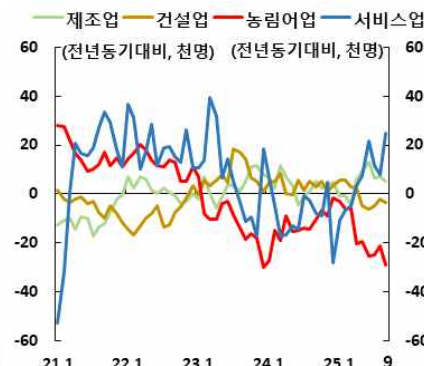
25. 2020~24년 중 전남지역 취업자수는 3.0만명(2020년대비 2024년 증가율 +3.1%) 증가하였다. 세부업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1만명(+6.3%), 도소매·숙박·음식업 1.0만명(+5.7%)이 늘어났다.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2만명(-2.7%), 건설업 0.2만명(-2.4%) 등이 감소하였다<sup>14)</sup>.

그림 3-16. 전남지역 업종별 취업자수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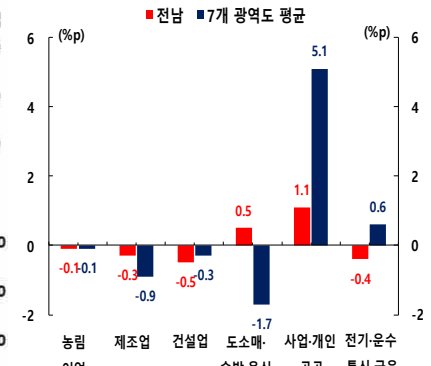
주: 1) 2024년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3-17. 전남지역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그림 3-18. 업종별 취업자수 비중 변화<sup>1)</sup>



주: 1) 2020년 대비 2024년 비중 증감  
자료: 통계청

### (4) 자영업자·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아 고용 불안에 노출

26. 전남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sup>15)</sup>를 살펴보면,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가, 2024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감소가 전체 취업자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 전남지역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13) 2025년 9월 기준 전남지역의 업종별 취업자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가 36.9만명(36.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농림어업이 18.8만명(18.6%), 도소매·숙박·음식업 17.5만명(17.4%) 등의 순이다. 광역도 평균에 비해 제조업(11.2%), 전기·운수·통신·금융업(8.5%) 비중은 낮고(타 광역도 평균은 각각 17.0%, 11.1%), 농림어업(18.6%), 건설업(7.7%) 등의 비중은 높다(타 광역도 평균은 각각 7.4%, 6.9%).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의 경우 전남에서 17.4%를 차지하여 타 광역도 평균(18.0%)보다 낮게 나타났다.

14) 동 기간 중 타 7개 광역도에서는 평균 16.4만명(+8.3%)이 늘었으나 전남지역의 증가 규모는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15) 2025년 9월 기준 전남지역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총 100.7만명)는 상용근로자 40.4만명(40.1%), 임시·일용근로자 23.2만명(23.0%), 자영업자 28.8만명(28.6%), 무급가족종사자 8.3만명(8.2%)을 기록하고 있다. 타 광역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전체 취업자수 대비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고 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 흐름을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2023년을 기점으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하반기 이후에는 다소 회복세로 돌아섰다. 반면 동 기간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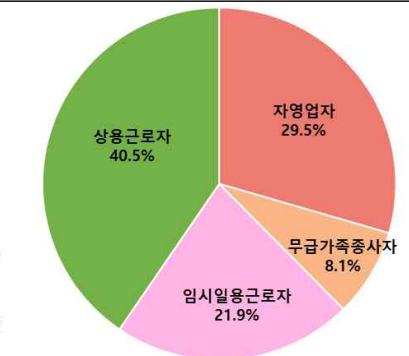
27. 2020~24년 중 상용근로자(+0.5%p), 자영업자(+0.9%p)의 비중은 늘고 임시·일용근로자(-0.0%p)의 비중은 보합 수준 유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변화 기조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한편 7개 광역도는 평균적으로 동 기간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2.8%p 상승한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0.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전남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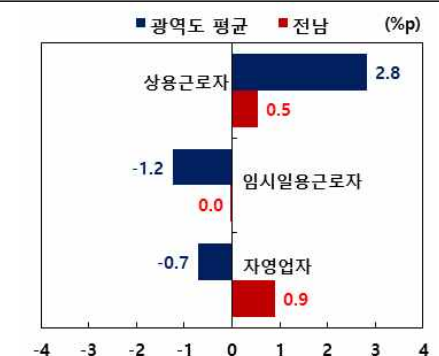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3-20. 전남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비중<sup>1)</sup>



주: 1) 2024년 기준  
자료 : 통계청

그림 3-21. 전남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비중 변화<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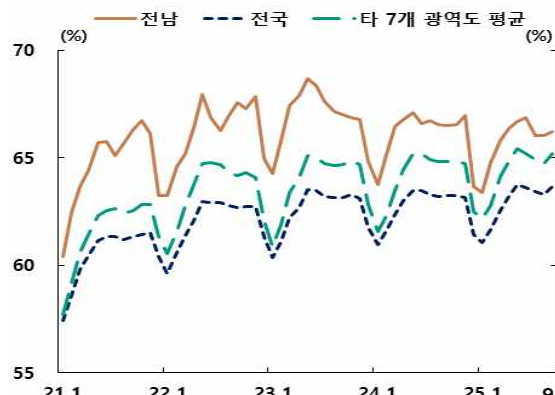


주: 1) 2020년 대비 2024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비중 증감  
자료 : 통계청

### (5) 고령층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28. 전남지역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6%(2025년 9월 기준, 이하 동일)로, 타 광역도 평균(44.8%)보다 높아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한편 전남지역 전연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7.8%, 고용률은 66.2%, 실업률은 2.4%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103.2만명이며, 실업자 수는 2.5만명 수준이다.

그림 3-22. 전남지역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표 3-1. 전남지역 주요 고용지표<sup>1)</sup>

	전남	7개 광역도 평균	전국
경제활동인구	103.2	224.3	2,978.8
경제활동참가율	67.8	67.1	65.0
(고령층)	(56.6)	(44.8)	(41.5)
고용률	66.2	66.1	63.7
실업률	2.4	1.6	2.1
실업자수	2.5	4.3	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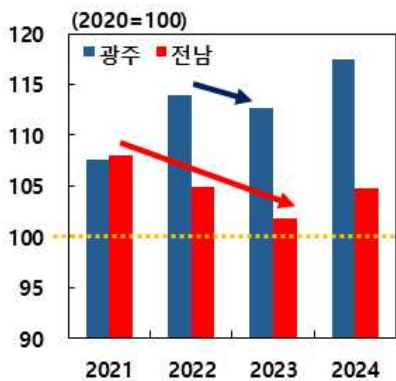
주: 1) 2025년 9월 기준  
자료: 통계청

## IV. 광주·전남지역 고용부진의 원인

### 1 주력산업 경기 악화에 따른 고용 불안

29. 최근 광주·전남지역은 주력 제조업의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지역은 2023년 중, 전남지역은 2022~2023년 중 제조업 부문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주요 중소 제조업체의 실적을 반영하는 산업단지 생산의 경우 광주지역은 2024년 37.8조원으로 2022년(40.2조원)대비 6.0% 감소하였으며, 전남지역은 2024년 135.0조원으로 2022년(139.6조원)대비 3.2% 감소하였다.

그림 4-1. 제조업 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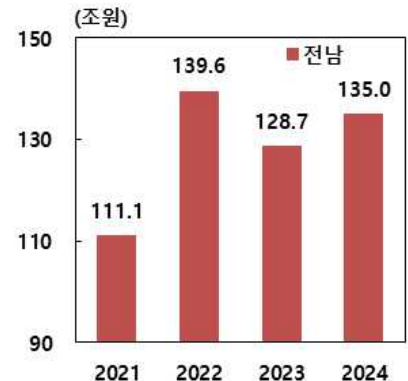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4-2. 광주지역 산업단지 생산액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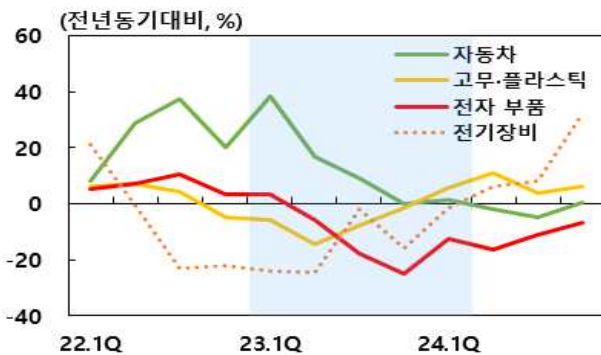
그림 4-3. 전남지역 산업단지 생산액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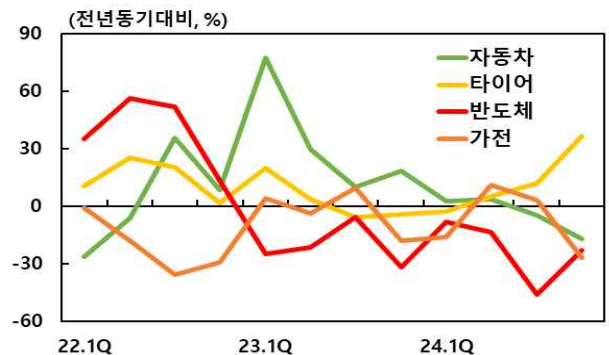
30. 광주지역의 제조업 생산을 주력산업별로 살펴보면, 2023년 중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진이 두드러졌다. 반도체 부문은 전방산업 수요 위축과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조정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며 실적이 악화되었다. 특히 가전부문은 지역 대표 기업의 경영난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광주에 본사를 둔 위니아그룹 계열사들<sup>16)</sup>이 2023년 9월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300여 개에 달하는 지역 협력업체들이 납품대금 회수 지연,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4-4. 광주지역 업종별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그림 4-5. 광주지역 품목별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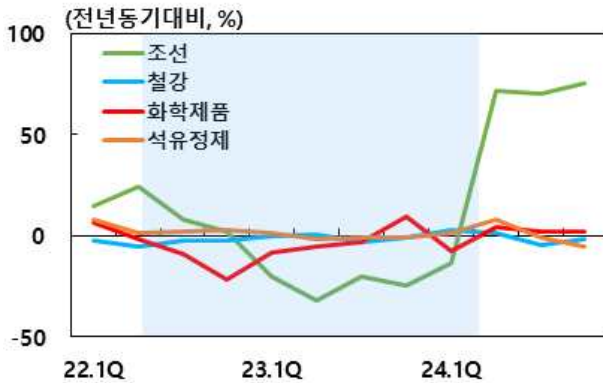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16) 위니아그룹의 총매출액은 2021년 기준 약 4.8조원(광주 GRDP의 약 11%)으로, 약 450개 협력사 중 70~80%가 광주·전남지역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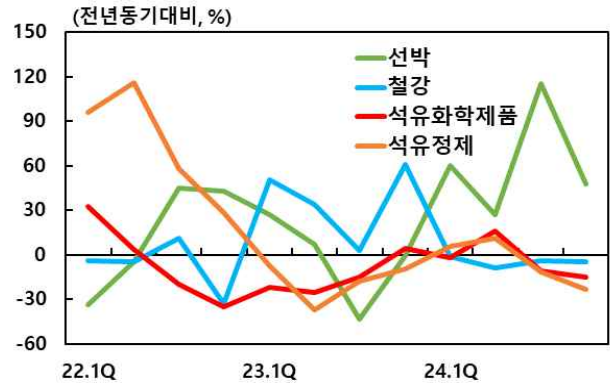
31. 전남지역은 2022~23년 중 석유화학·석유정제·철강 산업이 부진을 이어가며 지역 제조업 업황이 악화되었다. 석유정제 부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정제마진 축소로 실적이 부진하였고, 철강 산업은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생산이 줄어들었다. 특히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산업<sup>17)</sup>은 중국과 중동 지역의 설비 증설로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서 수출액이 감소<sup>18)</sup>하였다. 그 결과 2022년 하반기 이후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며 영업적자가 누적되었고, 여수산단 내 주요 석유화학업체의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산업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그림 4-6. 전남지역 업종별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그림 4-7. 전남지역 품목별 수출액



자료: 한국무역협회

32. 광주·전남지역 주력 제조업이 부진함에 따라 해당 산업의 고용도 부진해졌다. 광주 지역 산업단지의 고용은 2024년 6.7만명으로 2022년(7.0만명)대비 3.4% 감소하였으며, 업체당 고용인원은 14.1명(2022년 18.0명)으로 21.6% 줄어들었다. 전남지역 산업단지의 2024년 고용은 8.7만명으로 2022년(9.3만명)보다 6.3% 감소하였으며, 업체당 고용인원은 26.2명(2022년 29.9명)으로 12.5% 줄어들었다.

33. 향후 광주·전남지역의 주력 제조업은 생산 및 고용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의 경우 2025년 중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sup>19)</sup>하여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였으며, 전남 여수시는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부진으로, 전남 광양시는 철강산업의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sup>20)</sup>을 겪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당분간 광주·전남지역 주력 제조업의 회복을 제약하며, 상용근로자 축소 및 임시·일용근로자 확대 등의 고용 불안과 자영업 위축 등의 연쇄적인 고용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7) 2024년 기준 여수산단 입주업체 306개社 중 137개社(44.8%), 전체 고용인력 2.5만명 중 2.2만명(87.4%)이 석유화학업종에 해당한다.

18) 2021년 170억 달러 → 2024년 128억 달러

19) 2025년 5월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서쪽 2공장 정련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해당 공장은 생고무와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타이어 생산의 핵심 시설로, 화재로 인해 광주공장 전체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생산직 직원 약 1,850명 중 200여 명은 곡성공장으로 파견되었으나, 나머지 약 1,600명은 휴업에 들어가 70%의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공장 가동은 약 6개월간의 중단을 거쳐 2025년 11월부터 재개되었다.

20) 석유화학산업 및 철강산업의 부진으로 지역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남 여수시와 전남 광양시 일대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여수시 25.5월, 광양시 25.11월)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한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5년 11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표 4-1. 광주지역 산업단지 고용 현황

	(개,명)			
	2021	2022	2023	2024
가동업체수(A)	3,564	3,863	4,100	4,758
고용(B)	67,937	69,598	67,456	67,225
B/A	19.1	18.0	16.5	14.1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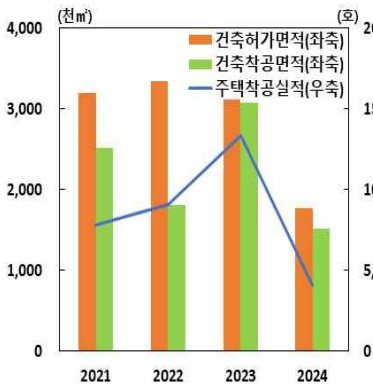
표 4-2. 전남지역 산업단지 고용 현황

	(개,명)			
	2021	2022	2023	2024
가동업체수(A)	2,986	3,099	3,311	3,318
고용(B)	89,524	92,626	96,710	86,816
B/A	30.0	29.9	29.2	26.2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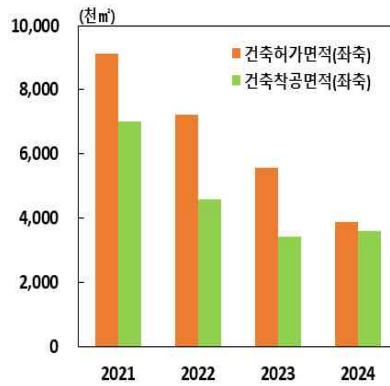
**34. 건설경기 또한 장기간 업황 부진이 지속되며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중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건설사 도산 증가<sup>21)</sup> 등으로 건설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었다. 광주지역의 경우 건축 착공면적이 2023년 대비 2024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고, 민간 건설수주액 역시 같은 기간 크게 축소되면서 건설경기 부진이 더욱 뚜렷해졌다. 전남지역 또한 2022년 이후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8. 광주지역 건축허가·착공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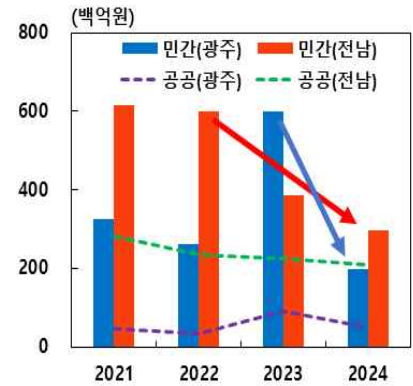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4-9. 전남지역 건축허가·착공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4-10. 광주·전남지역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자료: 국토교통부

21) 2023.11월~2024.2월 중 광주전남지역 내 7개 종합건설사(토담건설, 해광건설, 거송건설, 송학건설, 계원토건, 영신종합건설, 새천년종합건설)가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건설업계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종합건설사들의 자금난이 하도급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영세 건설업체들의 폐업도 증가(2023.6월 24개 → 9월 19개 → 12월 40개)하였다.

## 2 소비패턴 변화와 자동화·무인화에 따른 자영업 고용 여건 악화

35.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는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전자상거래 결제 추이를 보면 결제건수와 결제금액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식 문화의 축소 등 소비행태 변화가 나타나면서 자영업자당 소득은 2019년 1,430만 원에서 2023년 1,25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온라인 구매 확대와 팬데믹 이후 소비 방식 변화는 지역 자영업의 수요 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4-11. 광주·전남지역<sup>1)</sup> 전자상거래 결제 추이



주: 1) 신용카드 고객의 결제대금 청구지 기준  
자료: 신용카드 3社(하나, 신한, 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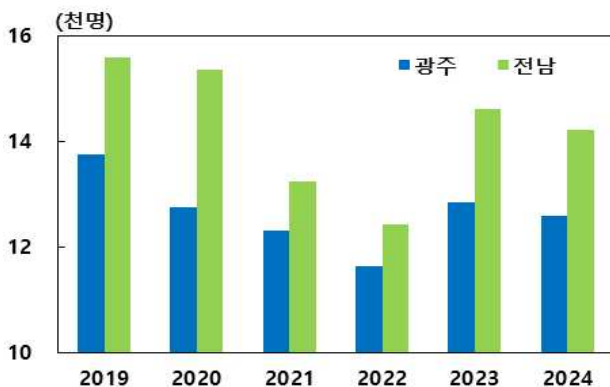
표 4-3.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 소득 변화<sup>1)</sup>

연도	사업소득 신고건수(A)	소득금액 (백만원B)	자영업자당 소득 (백만원 B/A)
2018	402,995	5,599,524	13.9
2019	431,707	6,170,193	14.3
2020	458,997	6,140,819	13.4
2021	531,076	6,743,262	12.7
2022	564,558	7,380,712	13.1
2023	599,731	7,517,372	12.5

주: 1)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추계하는 소득으로, 아래 식 ① 또는 ② 방식으로 계산한다.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배율  
자료: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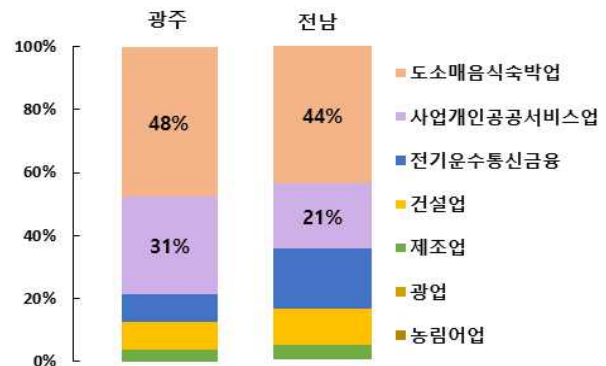
36. 그 영향으로 자영업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일반사업자 폐업 수<sup>22)</sup>는 2021~2022년 대비 2023~2024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폐업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2. 광주·전남지역 일반사업자 폐업 추이



자료: 국세청

그림 4-13. 광주·전남지역 일반사업자 폐업 업종별 구성비<sup>1)</sup>



주: 1) 2024년 기준  
자료: 국세청

22) 자영업 폐업 분석에서는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 중에서 법인, 면세, 간이사업자를 배제한 일반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37. 또한 자영업 내부에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자동화·무인화 확산이 꼽힌다.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태블릿 PC, 키오스크, 핸드폰 등) 도입 비중은 전국적으로 2020년 3.1%에서 2024년 12.9%까지 증가했으며, 호남권도 2020년에는 도입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후 빠르게 확산되어 2024년 9.8%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주문 절차의 자동화·무인화는 노동수요 감소로 이어져 고용원 축소와 '나홀로 사장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며, 그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4-4. 외식업체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

	전국	수도권	호남권	경남권	충청권	경북권
						(%)
2020	3.1	2.1	0.0	1.4	7.5	2.6
2021	4.5	3.7	1.4	4.0	2.9	2.8
2022	6.1	5.9	2.4	7.9	3.5	5.3
2023	7.8	9.2	1.5	5.9	4.8	12.0
2024	12.9	11.2	9.8	7.9	6.6	37.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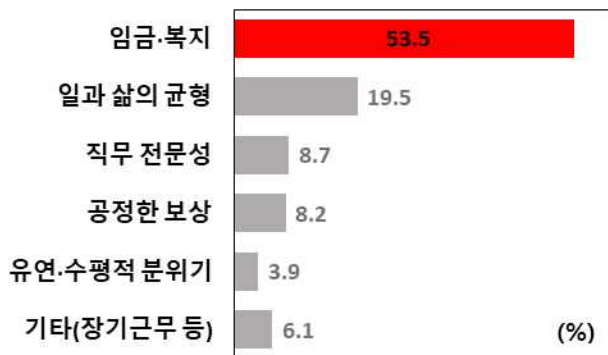
그림 4-14. 광주·전남지역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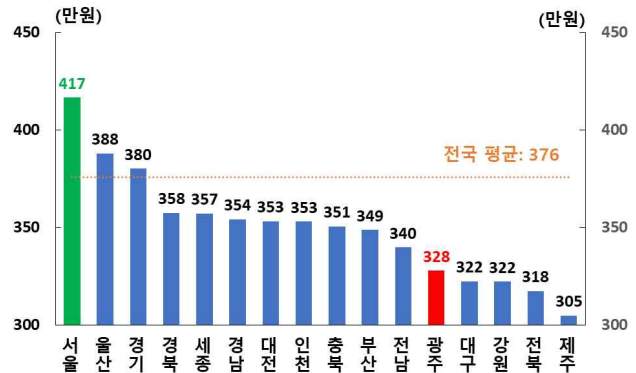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38. 종합하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온라인 구매 확대와 소비행태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대면거래 위주의 자영업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키오스크 등 무인화 확산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가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39. 청년층은 직장 선택 시 임금과 복지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기준 가운데 '임금·복지' 항목 응답 비중이 53.5%로 가장 높았다.
40. 그러나 지역별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광주지역의 월평균 임금은 328만 원으로 광역시 중 대구(322만 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서울(417만 원)의 약 79%, 전국 평균(376만 원)의 약 87% 수준에 불과해, 광주지역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그림 4-15. 청년층 선호 일자리(직장) 기준<sup>1)</sup>

주: 1) 전국 17개 시도 청년(19세~34세) 4,001명 대상 조사  
 자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

그림 4-16. 지역별 월평균 임금<sup>1)</sup> 현황<sup>2)</sup>

주: 1) 상용월급액  
 2) 2024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41. 광주지역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경은 첫 번째로 저숙련 직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직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광주지역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sup>23)</sup>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sup>24)</sup> 양질의 일자리로 간주하는 고숙련 직업 종사자 비중은 21.3%로 8개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서비스·판매·단순노무 등 저숙련 직업 종사자 비중은 38.1%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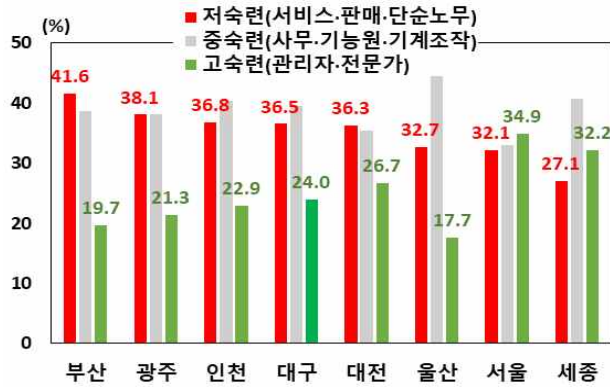
또한 2020년 대비 2024년 광주지역의 직업 구조의 변화를 보면, 고숙련 직업 종사자 비중은 7.3%p 하락한 반면, 저숙련 직업 종사자 비중은 5.6%p 상승하였다. 반면 광주를 제외한 7개 시(특별시·광역시)의 경우 고숙련 직업 종사자 비중이 12.5%p 상승한 반면, 저숙련 직업 종사자 비중은 1.4%p 하락하여 광주와 상반된

23) 김남주(2015), Tüzemen(2018), 박용민·권기백·이나영(2018) 등을 인용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① 고숙련 직업은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중숙련 직업은 사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③ 저숙련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로 분류하였다.

24) 직업별 월평균임금총액은 다음과 같다: 고숙련 841만원, 중숙련 389만원, 저숙련 230만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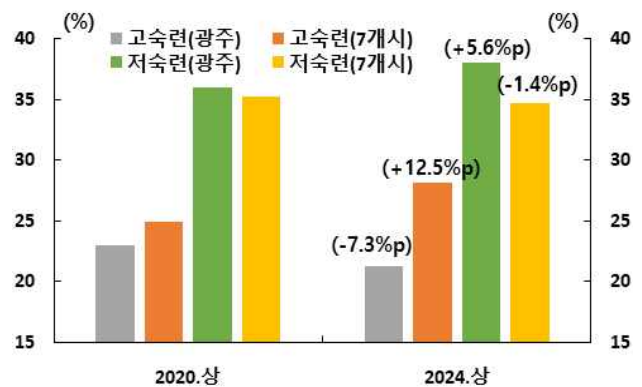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추세는 광주지역의 고속련 일자리의 확충 여건이 미약함을 보여주며, 향후에도 임금 경쟁력 개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17. 지역별 취업자 직업별 분포<sup>1)</sup>



주: 1) 2024년 상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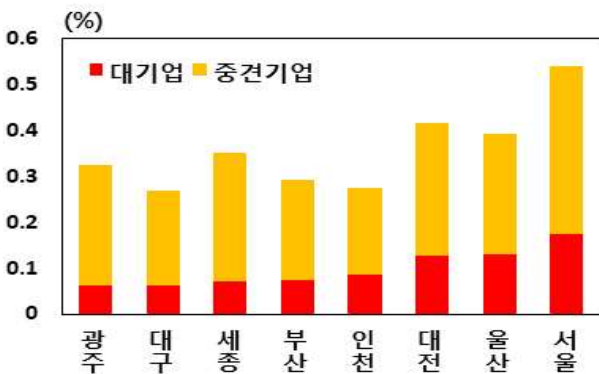
그림 4-18. 광주지역 직업구조 변화<sup>1)</sup>



주: 1) ( )는 2020년 상반기 대비 증가폭  
자료: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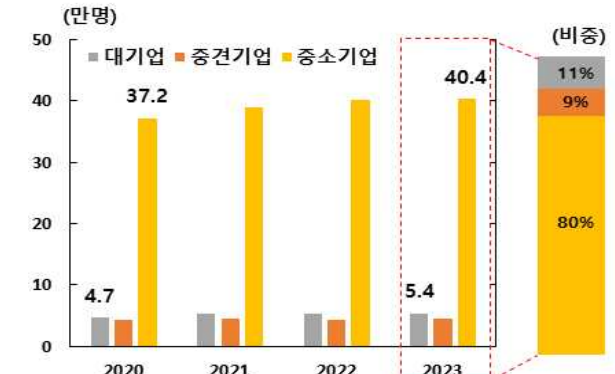
42. 두 번째로, 광주지역 사업체의 규모별<sup>25)</sup> 특성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sup>26)</sup>이 높은 대기업의 비중이 낮은 반면, 다수의 사업체가 종사자 수가 적고 임금 수준이 낮은 영세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사업체 규모를 비교한 결과, 광주지역의 대기업 비중은 8개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종사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가 40.4만명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2020년 37.2만명에서 2023년 40.4만명으로 3.2만명 증가하여, 같은 기간 대기업 종사자 수 증가(4.7만명 → 5.4만명, +0.7만명)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광주지역에서 대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제한적이며, 결과적으로 임금 경쟁력 개선 여건이 구조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4-19. 지역별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비중<sup>1)</sup>



주: 1) 2023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그림 4-20. 광주지역 기업규모별 취업자 추이<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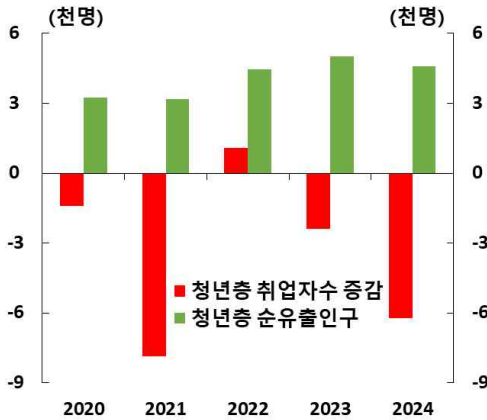
주: 1) 2023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5) 본고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분류를 종사자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대기업 500인 이상, 중견기업 200인 이상 500인 미만, 중소기업 200인 미만  
26)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임금은 다음과 같다: 300인 미만 364만원, 300인 이상 622만원(2024년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43. 광주지역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소득·양질의 일자리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은 청년층의 순유출로 이어졌다. 광주지역 청년 인구는 2020년 이후 매년 3천명 이상 순유출되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약 5천명 수준의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광주지역 청년인구의 순유출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청년층의 지역별 순이동<sup>27)</sup>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4.6천명이 광주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순유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5.0천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한 광주지역 거주자의 주요 전출사유<sup>28)</sup>로는 '직업'이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지역 거주자들의 수도권 이동은 주로 취업 기회와 직업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청년층 역시 이러한 요인에 따른 이동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21. 광주지역 청년층 취업자수 및 청년층 순유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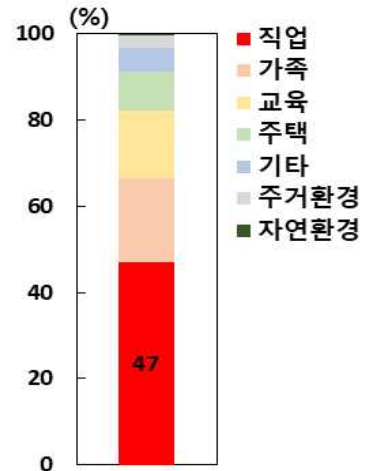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표 4-5. 광주 청년층의 지역별 순이동<sup>1)</sup>

지역별 순이동인구(명)			
수도권	4,989	경북	60
서울	3,037	세종	59
경기	1,564	강원	34
인천	388	대구	1
충남	303	제주	-24
대전	290	경남	-40
충북	165	전북	-253
부산	131	전남	-1,176
울산	63		
		총	4,602

주: 1) 2024년 기준. 양수이면 순유출, 음수이면 순유입  
자료: 통계청

그림 4-22. 광주지역 거주자의 수도권으로의 전출사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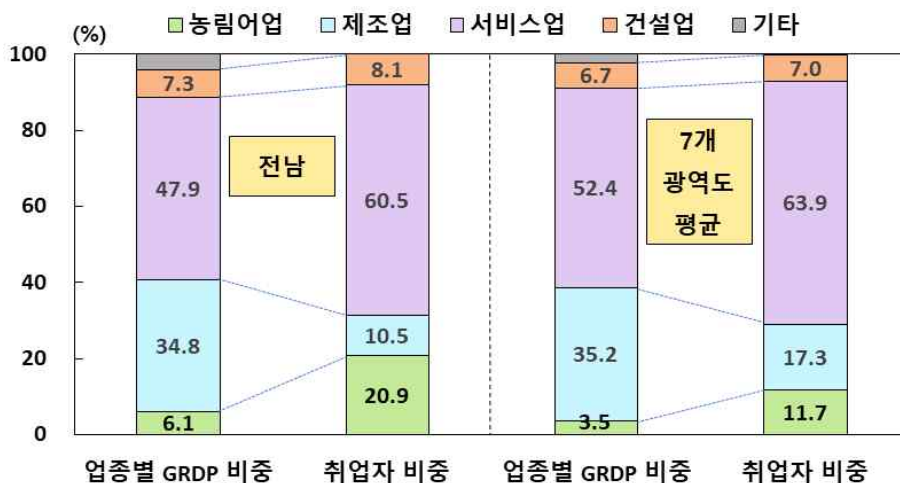
주: 1) 전 연령대, 2024년 기준  
자료: 통계청

27)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순이동을 (광주지역에서 타지역으로의 전출인구 - 타지역에서 광주지역으로의 전입인구)으로 정의한다. 해당 값이 양수이면 순유출, 음수이면 순유입으로 해석된다.

28) 해당 통계는 광주지역 청년층만이 아닌, 광주지역 전 연령대를 보여준다. 전출지-전입지 전출사유 통계를 연령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통계가 현재로서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45. 전남지역은 농림어업 부문의 생산 및 고용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2023년 기준)은 6.1%로 전남을 제외한 7개 광역도<sup>29)</sup>의 평균(3.5%)을 상회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2024년 기준)은 전남의 경우 20.9%로 7개 광역도 평균(11.7%)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sup>30)</sup>. 전남지역은 농림어업 부문에 대한 고용 의존도가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아, 농림어업 부문의 변화가 지역 전체 고용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그림 4-23. 전남지역 업종별 GRDP 비중 및 취업자 비중<sup>1)</sup>



주: 1) GRDP는 2023년, 취업자는 2024년 기준  
자료: 통계청

46. 전남지역 내 농림어업 부문 고용 의존도가 높은 시·군에서 최근 5년간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남지역 업종별 취업자 변화를 분석한 결과,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2020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2023년에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전남지역을 5개 시<sup>31)</sup>와 17개 군<sup>32)</sup>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농림어업 종사 비중이 높은 17개 군에서 최근 2년간 취업자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지역 고용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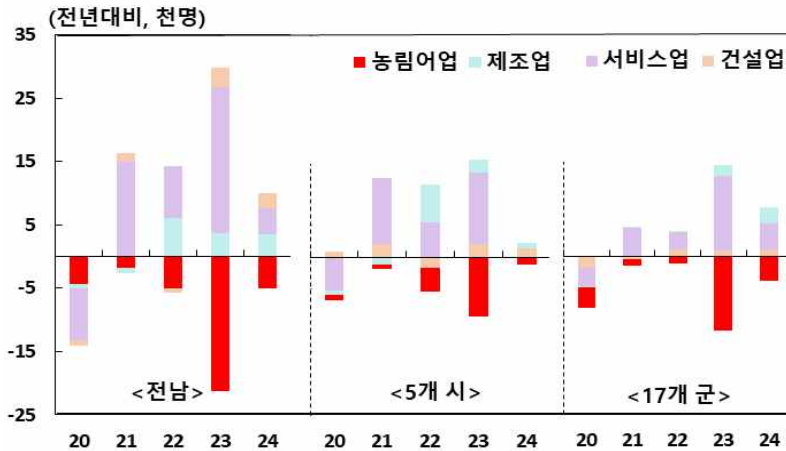
29) 제주를 제외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30) 제주를 포함한 8개 광역도의 GRDP 중 농림어업 평균 비중(2023년 기준)은 4.3%, 취업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 평균 비중(2024년 기준)은 11.8%이다.

31)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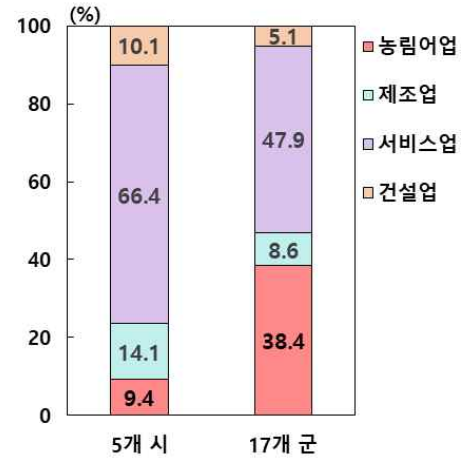
32)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그림 4-24. 전남지역 시군별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sup>1)</sup>



주: 1) 2024년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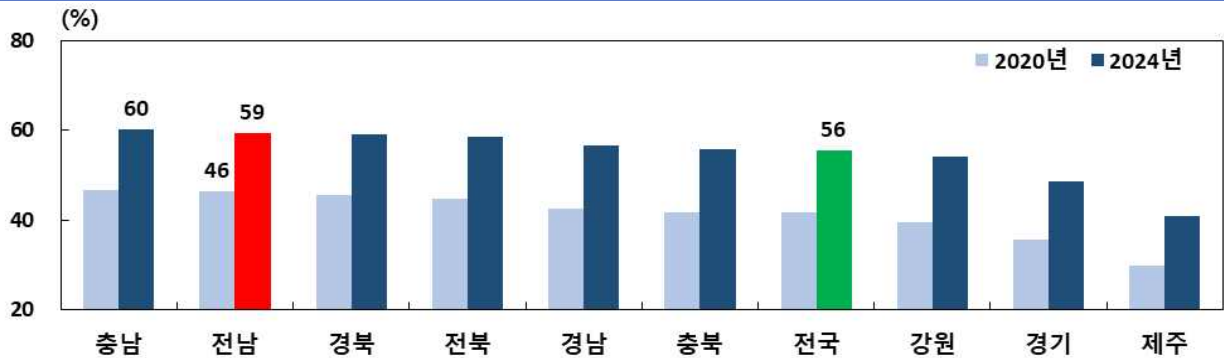
그림 4-25. 전남지역 시군별 업종별 취업자수 비중<sup>1)</sup>



주: 1) 2024년 기준  
자료: 통계청

47. 전남지역의 농림어업 취업자수 감소는 농림어업 인구의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은퇴·전업 등으로 인해 일하는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인구는 감소하게 된다. 전남지역 농림어업 인구<sup>33)</sup> 중 고령층 비중은 최근 5년간 빠르게 확대되었다. 2020년 46%였던 고령층 비중은 2024년 59%로 상승하여 전국 평균(56%)을 상회하였으며, 충남(60%)에 이어 9개 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4-26. 광역도의 농림어업 고령층 비중(2020년 vs 2024년)



자료: 통계청

33) 농가인구, 어가인구(해수면어업), 임가인구의 합

## V. 종합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1 종합평가

48. 광주와 전남지역의 상대적으로 작은 GRDP 규모는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업·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동 산업부문의 고용인력 유인 등 고용정책을 새롭게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지역 인구도 타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고령층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과 핵심연령층은 감소하여 고용인력 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49. 최근 광주지역 취업자수는 과거 1년 동안의 감소세에서 증가 전환하였으나 구직난은 심화되는 모습이다. 연령별 취업구조는 타 광역시 평균에 비해 취업자의 청년층 비중은 더 크게 축소된 반면, 고령층 비중은 더 크게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되어 취업자 비중도 축소되었다. 또한 자영업자는 2024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0. 전남지역의 취업자수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과 건설업 비중이 타 광역도 평균 대비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취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고용안정 측면에서 일자리 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및 청년층 역외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경기 악화시 고용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증가세를 보이던 핵심연령층이 감소로 전환되어 향후 고용시장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51. 이와 같이 광주·전남지역의 고용이 부진한 원인으로서는 ① 주력산업 경기 악화에 따른 고용 불안, ② 소비패턴 변화와 자동화·무인화에 따른 자영업 고용 여건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③ 광주지역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층 인구 유출, ④ 전남지역은 농림어업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기반 약화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첫째, 광주에서는 2023년 중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생산부진이 두드러졌으며, 전남에서는 2022~23년 동안 석유화학·석유정제·철강 산업의 부진이 지속되었다. 건설업 또한 장기간 업황 부진이 지속되었다.

둘째, 온라인 구매 확대와 소비행태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자영업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키오스크 등 무인화 확산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가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광주지역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소득·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낮아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전남지역은 농림어업 부문의 생산 비중에 비해 고용 비중이 높은 구조인데, 최근 5년간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농림어업 인구의 고령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52. 광주·전남지역의 주력산업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업 구조에 맞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석유화학·정유·철강 등 중화학 기반 산업 비중이 높아 탄소저감형 친환경 제품 및 첨단산업용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태양광·풍력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3.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의 약화된 고용 기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소비채널 전환과 소비행태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인 만큼, 지역 자영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내 대규모 물류시설을 유치한다면, 물류·유통 분야 고용을 확대해 지역 고용구조의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4. 광주지역의 청년층 유인을 위해서는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여 고속·전문직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5. 마지막으로 고령화에 따른 전남지역 농림어업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스마트농업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데이터·ICT 기반의 스마트양식 및 스마트팜 운영 등 고속·전문직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농업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화<sup>34)</sup> 기반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창업·창직 기회를 넓히고, 농촌 내 돌봄·복지·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함께 육성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고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34) 6차산업이란 농·임업 등 농·산촌 자원(1차)과 농·임산물 가공, 외식, 유통, 관광·레저 등 2,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 참고문헌

- 김남주(2015), “중숙련(middle-skill) 일자리의 감소가 고용 없는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38(3).
- 김상욱·우민지(2025), “전남지역 제2차 베이비붐 세대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목포본부.
- 박범기·안중섭·김민수(2024), “광주·전남지역 청년고용 부진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
- 박용민·권기백·이나영(2018),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대한 평가: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을 중심으로”, BOK이슈노트, 2018-9호.
- 백승연·최재혁(2023), “대전지역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 선진산·안중섭·김민수(2024),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경영여건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
- 선진산·최열매·조진오(2025), “광주·전남지역 경제 주요 이슈 및 전망”,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 이재진(2024), “최근 충북지역 고용 동향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충북본부.
- 이형구(2023), “대구경북지역 고용의 양과 질 평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정혜윤·임연빈(2025), “최근 대전지역 고용 상황의 주요 특징 및 평가”,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 정희완(2024), “강원지역 고용의 질 평가 및 대응방안”, 한국은행 강원본부.
- Tüzemen, D.(2018), “Why are prime-age men vanishing from the labor force?,” *Economic Review*, pp. 5-30, Q1 2018, FRB of Kansas City
- 국세청 <<https://tasis.nts.go.kr/>>
- 국토교통부 <<https://stat.molit.go.kr/>>
- 고용노동부 <<https://laborstat.moel.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
- 통계청 <<https://kosis.kr/>>
- 한국고용정보원 <<https://eis.work24.go.kr/>>
-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s://www.kicox.or.kr/>>